

보도시점 : 2026. 9. 20.(일) 11:00 이후(9. 21.(월) 조간) / 배포 : 2026. 9. 18.(금)

안전운전 배달 종사자 보험료 최대 11% 할인

【관련 국정과제】 93-6 물류, 수송, 건설 등 국토교통 취약노동자 보호 강화

- 교통안전 관련 보험료 할인을 최대 5% → 11%로 확대
- 배달 종사자 운전자 상해를 지원하는 특화상품도 연내 출시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의 자발적인 안전운전 노력이 보험료 할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교통안전 관련 할인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최대 5%에서 11%로 확대한다.

* 배달 플랫폼사(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바로고, 부릉, 래티브)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비영리 법인(‘24.6. 사업개시)

○ 올해 6월 3일부터 배달 종사자의 안전사고 공백을 해소하고 배달 종사자와 보행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이번 조치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운전을 위한 종사자의 관심과 노력이 보험료 할인 혜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 배달 종사자가 교통안전교육(주행실습 교육)을 이수하거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또는 이륜차 전면번호판을 장착하면 각 항목의 보험료 할인율이 5%로 확대된다.

*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에서 제품 성능 시험 및 인증을 완료한 제품

○ 각 할인 항목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여 종사자는 교통안전 관련 할인만으로 최대 11%의 보험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교통안전 관련 보험료 할인 〉

구 분	기 존	개 선
교통안전교육 이수*	3%	5%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3%	5%
이륜차 전면번호판*** 장착	1.5%	5%
교통안전 관련 특별약관 할인율	최대 5%	최대 11%

* 교통안전교육 이수 : 전문 기관에서 '배달업 종사자 교통안전' 실습 교육 이수

**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 속도, RPM, GPS 등을 통한 위치, 방위각, 가속도, 주행거리 등을 자동적으로 전자식 기억장치에 기록하고 그 기록을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장치

*** 이륜차 전면번호판 :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이륜차의 전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말하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을 위해 부착한 스티커 형태의 번호판을 포함

□ 확대된 할인율은 2026년 9월 21일 이후 공제조합의 ‘유상운송 월(30일) 공제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도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본 공제보험 상품은 공제조합 모바일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배달서비스공제' 검색하여 설치

□ 아울러, 공제조합은 종사자의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 정도가 심하고 수입이 즉각 감소하는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전자 상해 지원 특화 상품’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 해당 상품을 통해 배달 수행 중 발생 하는 사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수입의 일부를 보전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며, 합리적 수준의 보험료를 책정하여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안전운전은 배달 종사자 본인은 물론 시민 모두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실천인 만큼, 안전운전에 대한 배달 종사자의 자발적인 관심과 노력이 보험료 절감이라는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인 폭을 확대했다”라면서,

- “앞으로도 배달 종사자의 부담은 줄이고 안전은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배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교통물류실 생활물류정책팀	책임자	팀 장	홍일산	(044-201-4152)
		담당자	사무관	김미광	(044-201-4158)
			주무관	서대원	(044-201-4157)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
MOVE TOMORROW